

##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조 희\* · 고영애\* · 강윤숙\* · 이규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건강한 사회인은 고도의 창의력과 기술은 물론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자신감 있는 통합된 인간을 필요로 하므로 최근 대학에서는 셀프리더십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인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는 성공적인 성인기로 이행하는 핵심요인으로서, 리더십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기존중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Choi & Song, 2008; Miller & Bowen, 1993). 더구나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하는 시기이므로(Lee, 2009; Han & Kim, 2010). 이 시기에 솔선성이나 책임감,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같은 자기관리능력이나 자기개념능력, 즉 자신과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인성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Manz와 Sims(1980)는 셀프리더십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기지시, 자기 동기부여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개인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는 독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Lee, 2010 재인용)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셀프리더십과 같은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과거의 리더십은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 리더십이었으나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의 목표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일의 성과를 증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자기개념은 개체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환경의 요구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위기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지 등을 반영한다(Lee, 2002). 자기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지각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되며,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개념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개념은 어느 정도 변화될 수는 있지만, 더욱 더 자의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queyoung@redcross.ac.kr)

투고일: 2011년 1월 13일 심사회의일: 2011년 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4일

(Rogers, 1970), 발달과정상 청년기에 들어선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자기개념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또한 필요하다. 더구나 간호대학 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책임감과 대인관계, 그리고 긍정적 자기개념의 능력과 셀프리더십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이전,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셀프리더십과 긍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셀프리더십이 자기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유효성 지표인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및 개인성과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Kang, 2003; Kim, 2007; Kim, 2009; Shin 2010)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간호 분야에서도 간호조직 구성원, 즉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대부분 직무만족도와 업무성과 등에 관련된 연구(Cho, 2003; Seo 2005; Seo, Cha, Cho, Kim, & Lee, 2006; Park, Yun, & Han, 2009; Ji, 2009; Lee, 2010)들이며, 대학생이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관련 연구는 불과 몇 편만이 있을 뿐이다. Lee(2009)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Park 등(2009)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차이 및 대학생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Han과 Kim(201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한편, 자기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로는 Lee(2006)의 심상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 가족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Lee(2002)의 심상치료가 간호학생의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Kim(2003)의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불안과의 관련성 정도로 몇 편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셀프리더십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자기개념 능력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간호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차원의 셀프리더십과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 자기개념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개념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지역과 K지역 소재 3년제 간호대학 4개교 1학년 학생 980명을 임의 표집 하였다. 이중 무응답을 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162명을 제외하고 총 818명(80.16%)이 최종 대상자가 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설문지는 Manz(1983)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Kim(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측정기

준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7이었고, Cho(2003)의 연구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1) 자기기대

이 척도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도전의 극복과 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긍정적인 기대는 실제로 과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부정적 기대는 그러한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업무수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2) 리허설

이 척도는 행위 또는 과업의 체계적 연습을 의미한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앞서 깊이 생각하고, 연습하는 태도이다. 리허설은 외부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부리허설은 단호한 행동을 발생 시킨다.

(3) 목표설정

이 척도는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표와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며,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표가 도전적이어야겠지만,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4) 자기보상

이 척도는 노력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할 의욕을 북돋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기보상은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들며 바람직한 행동을 완수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5) 자기비판

이 척도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벌을 주는 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가벼운 죄책감등은 가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지나치거나 습관이 되면 오히려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므로 좋지 않다.

(6) 건설적 사고

이 척도는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패턴을 의미한다. 실패를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는 등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기개념

자기개념 설문지는 Kim(1999)이 Deusinger(1986)의 '프랑크푸르트 자기개념 검사'와 Battle(1992)의 '문화영향이 없는 자존감 척도(Culture Free Self 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제작한 질문지이다. 이 검사는 총 86문항으로 자기존중감(self-esteem) 19문항,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 16문항,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relationship) 16문항,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17문항, 대인신뢰감(interpersonal trust) 18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형식은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아니다'까지 Likert 방식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는 각 하위 척도 점수들과 이를 합산한 총 점수로 계산된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86점에서 51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Kim(2003)의 연구에서 자기개념 Cronbach's  $\alpha$  값은 .96이었고 각 하위척도에서 자기존중감 .91, 정서안정성 .82, 대인관계능력 .87, 문제해결능력 .82, 대인신뢰감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Cronbach's  $\alpha$  값 .95였고 각 하위척도에서 자기존중감 .92, 정서안정성 .82, 대인관계능력 .91, 문제해결능력 .88, 대인신뢰감 .84이었다.

(1) 자기존중감 척도

이 척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인식, 신뢰감, 자신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만족스러워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2) 정서안정성 척도

이 척도는 감정의 기복과 예민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내적 동기에 의해 일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불안장애나 적응장애, 또는 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3) 대인관계능력 척도

이 척도는 대상자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대인공포증이나 회피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4) 문제해결능력 척도

이 척도는 피검자가 갑자기 닥친 일에 위기대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합리적인 상황판단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의존적 성격장애, 또는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5) 대인신뢰감 척도

이 척도는 대상자의 평소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대인공포증, 또는 편집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4.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자 및 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하고,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해당학교 교수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직접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수집된 자료는 우편으로 연구팀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10분-15분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및 자기개념은 t- 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 test를 사용하였다.

셋째, 셀프리더십, 자기개념의 하위개념들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1명(5.0%), 여자가 777명(95.0%)이었으며, 연령은 18세에서 20세 사이가 61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5.1%를 차지하였다. 21세에서 23세는 112명(13.7%), 24에서 26세는 41명(5.0%), 27세 이상은 51명(6.1%)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1명(52.7%),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87명(47.3%)로 나타났으며, 교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86명(59.4%),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32명(40.6%)이었다. 간호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직장생활 경험여부를 알아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35명(16.5%)였던 반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83명(83.3%)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지 간호학전공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잘 맞는다' 467명(57.1%), '보통' 269명(32.9%),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2명(10.0%)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대학생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만족'이 382명(46.7%), '보통'이 332명(40.6%), '불만족'이 104명(12.7%)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물어 본 결과, '경제상태가 좋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9명(26.8%), '중간이다' 394명(48.2%),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205명

(25.2%)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1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Sex	Female	777(95.0)
	Male	41( 5.0)
Age (yr)	18-20	614(75.1)
	21-23	112(13.7)
	24-26	41( 5.0)
	≤ 27	51( 6.1)
Religion	Yes	431(52.7)
	No	387(47.3)
Circle activity	Yes	486(59.4)
	No	332(40.6)
Working experience before college of nursing	Yes	135(16.5)
	No	683(83.5)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467(57.1)
	Moderate	269(32.9)
	Unsatisfied	82(10.0)
Satisfaction to college	Satisfied	382(46.7)
	Moderate	332(40.6)
	Unsatisfied	104(12.7)
Economic status	High	219(26.8)
	Middle	394(48.2)
	Low	205(25.0)

## 2.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 총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점이었으며, 최소 1.5점, 최대 5.0점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6개의 하위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하위별 점수의 평균은 자기기대 3.7, 리허설 3.7, 목표설정 3.8, 자기보상 4.1, 자기비판 3.3, 건설적 사고 3.2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에 대한 점수는 최대 238점에서 최대 516점이었다. 자기개념은 5개의 하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자기존중감 72.1, 정서안정성 58.3, 대인관계능력 68.2, 문제해결능력 64.3, 대인 신뢰감 64.3점으로 나타났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3.7점, 여학생이 3.6점으로 남학생이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299, p=.194$ ). 반면, 자기개념은 남학생이 336.9점, 여학생이 326.9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801, p=.005$ ). 연령에 따른 셀프리더십을 차이를 보면, 27세 이상의 대상자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1세에서 23세의 대상자가 3.8점으로 높았다. 반면 18-20세 대상자는 3.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연령에 따른 자기개념은 24-26세 연령군이 3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7세 이상 334.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18-20세 대상자가 가장 낮은 점수인 325.9점을 보여주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는, 종교가 있는 경우 3.7점, 종교가 없는 경

Table 2. The Levels of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N=818)

Variables	Mean±SD	Range (Min~Max)	
Self-leadership	Self-leadership total score	3.6± .43	1.56~5.00
	Self-expectation	3.7± .60	2.00~5.00
	Rehearsal	3.7± .69	1.67~5.00
	Goal-setting	3.8± .67	1.67~5.00
	Self-compensation	4.1± .61	1.00~5.00
	Self-criticism	3.3± .80	1.00~5.00
	Constructive thinking	3.2± .68	1.33~5.00
Self-concept	Self-concept total score	327.4±22.21	238~387
	Self-esteem	72.1± 7.21	41~ 93
	Emotional stability	58.3±12.07	26~ 85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bility	68.2±12.29	31~ 96
	Problem solving	64.3± 5.12	47~ 88
	Interpersonal trust	64.3± 6.10	41~ 84

Table 3. Comparison of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1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elf-leadership				Self-concept				
		Mean±SD	F/t	Scheffe	p	Mean±SD	F/t	Scheffe	p	
Sex	Male	3.7±.43	1.299		.194	336.9±22.12	2.801		.005	
	Female	3.6±.43				326.9±22.11				
Age (yr)	18-20	3.6±.41	15.351	a(b)	.000	325.9±21.84	5.424	a(c)	.001	
	21-23	3.8±.42				329.5±24.04				
	24-26	3.7±.49				336.5±22.93				
	≤ 27	3.9±.38				334.5±18.75				
Religion	Yes	3.7±.45	2.454		.014	330.0±22.17	3.594		.000	
	No	3.6±.40				324.5±21.90				
Circle activity	Yes	3.7±.41	3.796		.000	330.9±21.54	4.123		.000	
	No	3.6±.44				323.6±22.63				
Working experience before college	Yes	3.8±.47	4.785		.000	333.3±21.53	3.368		.001	
	No	3.6±.41				326.3±22.17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3.7±.41	49.070	a(b)	.000	333.5±20.10	54.625	a(b)	.000	
	Moderate	3.5±.38				321.8±21.97				a(c)
	Unsatisfied	3.3±.43				311.1±21.56				
Satisfaction to college	Satisfied	3.8±.43	39.899	a(b)	.000	332.4±21.05	27.693		.000	
	Moderate	3.6±.38				325.4±21.79				a(c)
	Unsatisfied	3.6±.43				315.6±22.31				
Economic status	High	3.7±.48	1.777		.309	333.5±19.72	11.673	a(c)	.000	
	Middle	3.6±.38				325.5±22.38				
	Low	3.6±.45				324.7±23.23				

우 3.6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t=2.454$ ,  $p=.014$ ), 자기개념도 셀프리더십과 같이 종교가 있는 경우 330.0점, 없는 경우, 324.5점으로 나타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594$ ,  $p<.001$ ). 동아리활동유무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는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3.7점,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6점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한군은 셀프리더십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t=3.796$ ,  $p<.001$ ), 자기개념 점수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학 입학전 직장생활경험 유무에 따른 셀프리더십점수를 알아본 결과, 직장생활경험이 있는 군이 3.83점, 없는 군이 3.64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785$ ,  $p<.001$ ). 또한 자기개념 점수를 알아본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군의 자기개념 점수는 333.3점, 없는 군은 326.3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368$ ,  $p=.001$ ).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를 알아본 결과, '간호학 전공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점수는 3.7점, '보통이다' 3.5점, '잘 맞지 않는다' 3.3점으로 나타났다( $F=49.070$ ,  $p<.001$ ).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자기개념의 점수를 알아본 결과, 간호학 전공이 '잘 맞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기개념점수는 333.5점, '보통'이 321.8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11.1점으로 나타나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4.625$ ,  $p<.001$ ).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를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점수는 3.8점, '보통' 3.6점, '불만족' 3.6점으로 나타나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39.899$ ,  $p<.001$ ),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자기개념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점수는 332.4점, '보통' 321.8점, '불만족' 311.1점으로 나타나 세 군 간의 자기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F=27.693$ ,  $p<.001$ ). 대상자들의 경제 상태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정도를 파악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차이가 없이 나타났으나, 자기개념에서는 경제상태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점수가 333.5점, '보통'이 325.5점, '낮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24.7점으로 나타나, 세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673$ ,  $p<.001$ ).

#### 4.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총점과 자기개념 총점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 .43, p < .01$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의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3년제 간호대학 1학년인 신입생을 편의 표집하여 연구한 결과이므로 간호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간호대학에서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증진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분포를 보면 전체 57.1%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2.9%는 보통이거나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입학당시부터 간호학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셀프리더십 향상과 긍정적 자기개념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경우 간호대학에로의 학교적응이 다소 늦어지면서 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감정은 학업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이는 학교중도 탈락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3년제 간호대학은 학교실정에 맞는 셀프리더십이나 자아 존중감 향상과 같은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운명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기적으로 대학을 갓 입학한 1학기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는 연령, 종교, 동아리 활동, 입학

전 직장경험, 간호학전공에 대한 적성, 대학생활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 선행연구 중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을 연구한 Park 등(2009)의 연구에서는 종교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 변수가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3.71점, 종교가 없는 대상자들은 3.63점이었는데 Park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학 전공 적성이 잘 맞는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Park 등(2009)의 연구에서도 간호학 전공적성이 맞는 그룹이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 총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67점이었는데 반하여, Park 등(2009)의 연구는 셀프리더십 총점이 3.56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2003)의 연구에서는 3.51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왔다. 종합병원 간호사 207명을 대상으로 한 Kim(2009)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평균점수가 3.21이었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Nam(2009)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평균점수가 남자 3.55, 여자 3.33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에 대한 도구가 같을 지라도 대상자에 따라, 즉 간호 대학생, 간호사, 기업인들 간의 점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셀프리더십 총 평균점수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반복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 셀프리더십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간호사나 기업인들보다, 더 많은 경쟁사회에 노출되어 있고 보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와는 달리 대학교육이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N=818)

Variables	Self-leadership	Self-concept
Total levels of self-leadership	1.00	
Total levels of self-concept	.437**	1.00

\*\* $p < .01$

전통적 강의식 방법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중심의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과제보다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과제가 많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자기개념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연령, 종교, 동아리 활동, 대학입학 전 직장경험, 간호학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총점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와 연령대가 비슷한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와 비교하여 보았다. Kim(2003)의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개념 총점수는 336점이었고, 비행청소년은 341점으로 오히려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의 자기개념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에 대한 총 점수는 327점으로 Kim(2003)의 연구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Kim(2006)의 연구에서는 사전 실험군의 자기개념 총점이 227점, 통제군이 269점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보다 자기개념 총점이 더 낮게 나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개념의 하위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72.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서안정감 68.26점, 대인관계능력 68.03점, 대인신뢰감 64.36점, 문제해결능력 64.3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2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사전 평균점수가 문제해결능력이 평균 48.40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정서안정성이 45.00점으로 가장 낮게 나와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Kim(2003)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안정성 56점, 대인관계능력 63점으로 나와 점수는 다르나 순위가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Kim(2003)의 연구대상자는 일반청소년들의 연령은 17세에서 24세가 97%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연령대와 거의 흡사하여 비교가 가능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점수가 72.10이 나왔는데, Kim(2003)의 연구에서는 77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신뢰감은 본 연구에서 64.36점인데 비해 Kim(2003)의 연구에서는 74점으로 나와 본 연구보다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게 나온 자기개념의 하위요인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인신뢰감이며, 대인관계능력은 68.03점이다. 마지막으로 셀프리

더십 총점과 자기개념 총점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Table 4). 그 결과,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 $r=.43$   $p<.01$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이 자기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한 교육은 자기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리더십기술과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Lee(2009)와 일치하였고, Kang, Choi, Park과 Kim(2010)이 연구한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자아 존중감 및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이( $r=.387$ ,  $p<.001$ )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r=.437$ ,  $p<.001$ ). Cho(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도와 업무성과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간호사와 간호학생으로 대상자가 다르긴 하지만 연구결과는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2009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S와 K지역 소재 4개 3년제 간호대학 1학년 신입생 전수 9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하였으며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 총점은 27세 이상이 높았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는 있는 학생이 점수가 높고,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 그리고 간호학 전공이 적성에 잘 맞다고 응답한 학생, 간호대학에 입학하기 전 직장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셀프리더십 총 점수는 3.6점이었으며, 자기개념 총 점수는 327점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의 하위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정서안정성,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 신뢰감 순으로 나왔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셀프리더십과 자기개념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갓 입학한 1학년 간호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교육이나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 할 수 있는 인성교육차원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나 긍정적 자기개념에 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References

- Battle, J. (1992).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ies*. Austin, TX: Pro - Ed.
- Cho, K. H. (2003).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bout job-satisfaction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oi, Y. K., & Song, W. Y. (2008). Leader recommendation qualifi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group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88-289.
- Deussinger, I. (1986). *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 (FSKN)*. Hananueisung. gottingen: Hogrefe.
- Han, Y. S., & Kim, M. S. (2010) Gender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nd its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5(2), 215-233.
- Ji, Y. H. (2009). Effects of th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head nurse's leadership on the job satisfaction. *Korea Society of Hospital Administration*, 14(3), 1-22.
- Kang, K. S. (2003). *Study on the impact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by leadership typolo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University, Chungju.
- Kang, Y. S., Choi, Y. J., Park, D. I., & Kim, I. J. (2010).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2), 143-151.
- Kim, H.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d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J. K. (1999). *Sung shin self-concept tool*. Korea Guidance, Seoul.
- Kim, K. S. (2007).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education on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iduk University, Gyeongju.
- Kim, M. D. (2003).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style, self-concept, depression, and anxie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g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Kim, M. J., & Kim, J. K. (2006). The effect of gestalt group psychotherapy on self-concept, depression, anxiety of run out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5(2), 41-57.
- Kim, S. W. (2009).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in-role behavior, OCB, and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H. K. (2002). The effects of imago psychotherapy on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2), 137-144.

- Lee, H. K. (2006). The effects of imago psychotherapy program on self-concept of alcoholic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3), 281-288.
- Lee, H. K. (2009).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 lif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278-284.
- Lee, J. S. (2010). *The relationship on nurses'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S. (2009).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s and ego states of clinical nurses in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4), 453-462.
-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In.
- Manz, C. C., & Sims, H. P. (1980).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the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 361-367.
- Miller, J. P., & Bowen, B. E. (1993). Competency, coping, and contributory life skills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Agric Education, 31*(1), 68-76.
- Nam, J. H. (2009). *Effect of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Cheongwon.
- Park, J. H., Yun, E. K., & Han, S. S. (2009). Factors influencing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4), 499-507.
- Rogers, C. R. (1970). *Carl rogers on encounter groups*. New York : Harper & Low
- Seo, G. A. (2005).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1*(1), 45-58.
- Seo, G. A., Cha, S. O., Cho, K. H., Kim, I. A., & Lee, S. J. (2006).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2*(1), 151-158.
- Shin J. A. (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the Freshmen of Nursing College

---

**Cho, Hee**(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Ko, Young Aie**(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Kang, Yoon Sook**(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Lee, Gyuyoung**(Assistant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nursing students. **Methods:** We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 survey in a convenient sample of 818 subjects recently admitted into college in Seoul and the Kyungki province, Korea. The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levels were measured using the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scales, respectively. The subjects were given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ANOVA, scheffe-test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 software version 17.0. **Result:** Positive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the investigated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nurs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s designed for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development.

**Key words :** Leadership, Self-concept